

작중인물의 성격학적 비교 연구*

- <標本室의 靑개구리>와 <狂炎소나타>를 중심으로 -

최 상 윤**

차례

I. 서론

II. 작중인물의 성격 발달 배경

III. 작중인물들의 성격적 차이점

IV. 작중인물들의 성격적 공통점

V. 결론

I. 서론

廉想涉의 <標本室의 靑개구리>와 金東仁의 <狂炎소나타>에 대한 연구는 다방면에서 시도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소설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두 작가 모두 『폐허』와 『창조』지의 중심인물로 20년대에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자연주의 문학의 터전을 잡은 작가로서¹⁾ 알려져 있다. 그리고 두 작품 모두 액자소설(frame-story)로서²⁾, “이야기의 외측에 또 하나의 서술자의 시점을 인정함으로써 ‘나’와 ‘그’라는 이중의 인

* 이 논문은 2003년도 동아대학교 해외파견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1) 趙演紘, 『韓國現代文學史』(서울, 成文閣, 1977, 3版), 375-393쪽.

2) 李在鉉, 『韓國短篇小說研究』(서울, 一潮閣, 1982, 重版), 134-147쪽.

물시점의 서술방법을 채택”³⁾하고 있다. 그리고 두 작품 모두 ‘김창억’과 ‘백성수’라는 광인을 중심인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고의 목적은 이런 일반론적인 유사점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다. 자의식 소설에는 ‘이드’(Id)나 ‘초자아’(super ego)가 어느 한쪽으로 강하게 치우친 작중인물이⁴⁾ 등장하기 마련인데 <標本室의 靑개구리>의 ‘나’(X)와 ‘그’(김창억) 그리고 <狂炎소나타>의 백성수가 이에 해당된다. 두 작가는 물론 독자들도 김창억과 백성수를 단순히 광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견해를 바로 잡기 위해 논자는 성격학(characterology)의 이론을 원용하고자 한다.

성격학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종합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크게는 인류학에서부터 민족성 또는 한 개인의 개성을 파악하는 데는 필요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사회학, 역사학, 민속학 등 다방면에서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모든 분야의 현상과 지식과 감정이 융합되어 표현되는 문학에서는 도저히 무관할 수 없다. 특히 문학(소설)의 특질은 인간탐구가 궁극적인 과제이며, 인간의 종합적 관찰에 있는 것이다. “그 구성요소에 있어서 성격(인물), 행위(사건), 환경(시간·공간)을 중요시”⁵⁾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인물인 것이다. 시는 인간을 제외한 자연만을 노래할 수 있지만 소설은 자연만으로 창작될 수 없는 점에서 소설문학과 성격학의 관계는 성립된다. “문학과 심리학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가치 있는 것이다. 심리학자와 예술가는 가끔 같은 영역의 경험에 대해 알고 있으나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지식을 나타내고 이해한다. 작가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현실을 조정하기 위한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키고 깨달음을 확장시켜 준다. 반면에 심리학자는 우리를 어떤 분석적, 절대적 경험의 형상을 이해하도록 해 준다.”⁶⁾ 결국 “소설문학이나 성격학 두 가지 다 인간의 행동과 인간행위의 결과(영향)를 연구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⁷⁾

3) 위의 책, 95쪽.

4) 최상운, 『한국자의식소설연구』(부산, 세종출판사, 2002, 증보판), 18쪽.

5)崔仁旭, 『創作實技論』 『世界文藝講座』 4.(서울, 語文閣, 1962, 4월), 135쪽.

6) Bernard J. Paris, 『A Psychological Approach to Fiction』(Indiana University Press, second printing, 1974), p.26.

7) Joseph P. Strelka, 『Literary Criticism and Psychology』(The Pennsylvania

이처럼 문학이 정신분석학, 심리학, 성격학에 소재를 제공하고 이 후자들은 문학에 이론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와 후자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심지어 프로이드는 “작가는 완고한 신경증 환자”라고 생각하며⁸⁾ “오오텐(Auden)도 예술가는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신경증 환자가 되어야 한다”⁹⁾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예술과 문학작품의 많은 부분이 신경증적 경향의 표현¹⁰⁾이 많다. 그러므로 문학의 분석·이해·평가에 성격분석의 이론 도입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작중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성격학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영어의 character가 ‘작중인물’ 곧 ‘성격’이며 ‘성격’이 곧 ‘작중인물’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소설문학의 주체도 인간이며, 성격학의 주체도 인간이다. 따라서 작중인물의 연구는 바로 작중인물의 성격연구이다. 그러므로 소설 문학의 가치는 인간상의 창조, 환언하면 작중인물의 성격창조 여하로서 결정된다.

이렇듯 작가가 소설을 통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찰하여 소설의 재미를 엮어 나가듯이 심리학자나 성격학자도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를 크나큰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소설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작중인물을 연구한다는 것은 바로 성격학의 보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필자는 성격학의 이론을 도움 받아 두 작품의 중심인물인 ‘나’(X), ‘김창억’ 그리고 ‘백성수’의 성격을 분석 비교하여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본격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II. 작중인물의 성격발달 배경

한 인간의 성격은 선천적인 것, 즉 유전인자와 후천적인 것, 즉 환경인자의 종합적인 결과로 나타난다. 특히 어릴 때의 성장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성인이 되고 난 뒤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¹¹⁾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먼저

State University Press, 1976), 55쪽.

8) Rene Wellek & A. Warren, 『Theory of Literature』(A harvest Book Harcourt, Brace & World, INC. New York, 1956), 70쪽.

9) 위의 책, 71쪽.

10) 韓東世, 『精神科學』(서울, 一潮閣, 1969), 79쪽.

<標本室의 靑개구리>에 등장하는 '김창억'의 성장과정과 가정 분위기는 어떠하였는지 작품을 통해서 알아보자.

북극의 철인(哲人), 남포의 광인(狂人) 김창억은 아직 남포해안에 증기선의 검은 구름이 보이지 않던 삼십여 년 전에 당시 굴지하는 객주(客主) 김건화(金健華)의 집 안방에서 고고(孤孤)의 첫소리를 울리었다. 그의 부친은 소시부터 몸에 녹이 쓴 주색잡기를 숨이 넘어갈 때까지 놓지를 못한 서도(西道)에 소문난 외도객(外道客). 남편보다 네 살이나 위인 모친은 그가 십사세 되던 해에 죽은 누이와 단 남매를 생산한 후에는 남에게 말 못할 수심과 지병(持病)으로 일생을 마친 박복한 여성이었다. 이러한 속에서 자라난 그는 잔열포류(孱劣蒲柳)의 약질일망정 칠팔 세부터 신동이라 들을이란만큼 영리하였다. 영업과 화류 이외에는 가정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의 부친도 의외에 자식이 충명한 것을 기뻐할 줄 알았었다.¹²⁾

위 인용문에서 작중인물 김창억의 성격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십사세 되던 해'의 어머니의 病死와 '영업과 화류 이외에는 가정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리고 '주색잡기를 숨이 넘어갈 때까지 놓지를 못한 그의 부친의 외도'라는 성장기의 환경 등이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 의하면 성격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요인은 어렸을 때의 '어머니의 돌봄'(mothering)이다.

어머니의 품을 모르고 자라난 어린이는 자기에게 오는 자극이 없고, 사랑과 믿음이 성장할 기회가 없어서, 나중에 자란 후에도 남과의 同一化가 잘 이루어지지 힘들게 되며, 따라서 자아나 초자아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기 쉽다.¹³⁾

위 인용문의 견해처럼 작중인물 김창억은 어머니의 돌봄(mothering)의 상실로 남들과의 동일화가 되지 않아 '삼원 오십 전으로 삼층집을 짓고 유유자적'하는 '몽현(夢現)의 세계에서 상상과 환영의 감주(甘酒)에 취한 성신(聖神)의 총아'로 등장하면서 假性自主性을 내세워 '동서친목회장'이 되기도 한다. 그는 또

11) Joseph P. Sterlka, 앞의 책, 49쪽.

12) 廉想涉, 『標本室의 靑개구리』 『韓國短篇文學全集』 1(서울, 新華社, 1979), 112쪽.

13) 韓東世, 앞의 책, 68쪽.

한 두 아내와의 이별(前妻의 病死와 後妻의 무단가출)을 극복하지 못했다. 특히 옥살이하는 동안, 가출한 후처와의 이별은 그의 성격형성에 거의 치명적이었다.

다음으로 <狂炎소나타>의 ‘백성수’의 경우를 살펴 보자.

그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끼친 것은 선천적 요인, 즉 유전적 요인이다. 그의 아버지의 성격의 일단을 보자.

내가 어제 이야기 하려는 백성수의 아버지도, 또한 천분 많은 음악가였습니다. -중략- 그는 야인(野人)이었습니다. 광포(廣布)스런 야성은 때때로 비위에 틀리면 선생을 두들기기가 예사이며, 우리 학교 근처의 술집이며 모든 상점 주인들은 그에게 매캐나 안 얻어 맞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야성은 그의 음악 속에 풍부히 잠재 있어서 오히려 그 야성적인 힘이 그의 예술을 빛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¹⁴⁾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백성수’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두 가지를 이어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천성적인 음악가적 기질이요, 또 하나는 야성적인 광포성인 것이다. 즉 “원시적 충동을 통털어 말하는 이드(Id)”¹⁵⁾의 정서를 아버지로부터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백성수는 반사회적 성격의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後項의 ‘반사회적 성격’에서 상술하겠다.

그리고 후천적 요인으로 그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준 것은 유년시절의 지나친 ‘어머니의 돌봄’이다. 백성수의 어머니는 ‘양가의 처녀’로서 유복자 백성수를 낳게 되고, 비록 품팔이를 할지언정 ‘교양이 있고 어진 그의 어머니는 성수를 곱게 길렀던’것이다. 다음 인용문을 보자.

변변치는 않으나마 오르간 하나를 준비하여 두고, 그가 잠 잘 때에는 슈우베르트의 자장가로써 그의 잠을 도왔으며 아침에 깨일 때는 하루종일 유쾌히 지내게 하기 위하여 도오랜드의 세컨드 왈츠로써 그의 원기

14) 金東人, 『狂炎소나타』, 『韓國短篇文學大系』 1(서울, 三省出版社, 1975) 145쪽.

15) A. A. Brill, 『Basic Principles of Psychoanalysis』(Washington Square Press INC, New York, 1960), p.305.

를 돋우었습니다. -중략- 아침에는 새소리, 바람에 버석거리는 포폴라 잎, 어머니의 사랑, 부엌에서 국 끓는 소리, 이러한 모든 것이 이 소년에 게는 신비스럽고도 다정스러워, 그는 피아노에 향하여 앉아서 생각나는 대로 키이를 두드리곤 하였습니다.¹⁶⁾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란 어린이는 “문화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경험의 풍부성을 공급받을 뿐 아니라 창조력에 도움을 받는다.”¹⁷⁾ 따라서 백성수가 ‘천 년에 한번, 만 년에 한번, 날’ 음악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의 유전적 원인도 있었겠지만 어머니의 극진한 배려가 없었던들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성격형성에 보다 심각한 것은 어머니의 지나친 돌봄에 의하여 극도로 발달한 超自我(super-ego)이다. “超自我는 이드(Id)의 충동을 억제하거나 금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명백한 공격이나 동성 성욕도착증이나 외디푸스적인 본능과 같은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쾌락으로 향하는 이들 무의식의 충동을 막거나 쏘서 밀어 넣는 역할을 한다.”¹⁸⁾ 그런데 어머니에 의해 발달된 이 超自我는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은 이드(Id)의 충동을 억제하고 있다가 어머니가 죽자 따라서 초자아도 소멸되고 그 동안 억제되어 온 이드가 일시에 분출된다. 그리하여 백성수는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반사회적 성격의 소유자가 될 뿐만 아니라 性倒錯 性格의 소유자로 전락하고 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後項의 IV 장의 ‘성도착 성격’에서 상술하겠다.

지금까지 필자는 <標本室의 靑개구리>의 작중인물 ‘김창억’과 <狂炎소나타>의 작중인물 ‘백성수’의 어린 시절의 성장과정과 환경을 통하여 그들의 성격발달에 영향을 끼칠 心因的 요인들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이들은 ‘약한 자아’(weak ego)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었다. 말하자면 ‘강한 자아’(strong ego)의 소유자는 쾌락원리(pleasure principle)를 추구하는 이드(Id)와 도덕적 원리(morality principle)를 추구하는 초자아(super-ego)를 균형 있게, 합리적으로 승화 조절하여 생활의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을 융통성 있게 해결해 나아가는 자

16) 金東人, 앞의 책, 151쪽.

17) Joseph P. Sterlka, 앞의 책, 49쪽.

18) Wilfred L. Guerin 外, 鄭在浣・金聖坤 共譯, 『文學의 理解와 批評』(서울, 靑鹿出版社, 1978), 99쪽.

인데 비하여 ‘약한 자아’의 소유자는 융통성없는, 반복되는 방어를 되풀이해서 성격상의 결함을 노출시키게 된다. ‘자의식 소설’의 작중인물들은 이런 자아의 방어가 무너진(decompensation)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중인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자.

Ⅲ. 작중인물들의 성격적 차이점

<標本室의 靑개구리>의 작중인물 ‘김창억’과 <狂炎소나타>의 작중인물 ‘백성수’는 정신병자일까 하는 의문점이 있다. 그들을 미치광이로 보기에는 너무나 조리 정연한 언행과 사고의 일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미치광이(insanity)도 바보(dementia)도 아닌 그러면서도 정신병자와 같은 이런 성격장애자(personality disorder)를 ‘精神病質的 劣等’(psychopathic inferior)¹⁹⁾이라고 하는데 작중인물 김창억과 백성수는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성격장애를 크게 분류하면 첫째, 未熟한 성격, 둘째, 反社會的 성격, 셋째, 性倒錯症 성격, 넷째, 性格異常으로 四大別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김창억과 연관된 것은 첫째와 셋째, 즉 ‘미숙한 성격’과 ‘성도착증 성격’이며, 백성수와 연관된 것은 둘째와 셋째, 즉 ‘반사회적 성격’과 ‘성도착증 성격’이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하여 詳論하고자 한다.

1. 미숙한 성격

미숙한 성격의 소유자들은 대체로 수동적(passive)이고, 부적당(inadequate)하고, 미숙한(immature)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보면, 한쪽 부류에는 말썽없이 말 잘 듣고, 남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저항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남이야 무엇을 하건 상관없이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제멋대로인 사람들이 속한다.”²⁰⁾

19) 韓東世, 앞의 책, 213쪽.

20) 위의 책, 214쪽.

그러나 ‘미숙한 성격’을 위와 같이 兩大別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세분화시키면

- ㉠ 妄想的 性格(paranoid personality)
- ㉡ 循環的 性格(cyclothymic personality)
- ㉢ 分裂的 性格(schizoid personality)
- ㉣ 強壓的 性格(compulsive personality)
- ㉤ 受動 攻撃的 性格(passive-aggressive personality)
- ㉥ 受動 依存的 性格(passive-dependent personality)
- ㉦ 不適 性格(inadequate personality)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일곱 가지 중에서 작중인물 ‘김창억’과 가장 관련있는 것은 ㉢과 ㉦항인데 우선 ㉢ ‘分裂的 性格’에 대하여 詳論하고자 한다.

(1) 분열성 성격

분열성 성격에는 네 가지 형이 있다. 즉 單純型(simple type), 破瓜型(hebephrenic type), 緊張型(catatonic type), 妄想型(paranoid type)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작중인물 김창억은 단순형에 속한다. 우선 단순형 증세부터 알아보자.

㉠대인 관계를 회피하게 되고, 혼자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식사도 친구나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하지 않고 혼자서 하게 되고, ㉢야심과 흥미를 잃고 적극성이 없어진다. ㉣친구도 없어지고 직장에도 안 나가고, ㉤밤이면 혼자 일어나 앉아서 라디오를 듣고 책을 보고...㉥언제나 수염을 기른 채, 더러운 옷을 입은 채 지낸다²¹⁾ (㉠-㉥ 부호는 필자)

위의 諸 증상에 부합될 수 있는 구절을 차례로 작품에서 인용해 보면

㉠ 아침에 세수할 때와 간혹 변소 출입 외에는 더운줄도 모르는지 창문을 꼭꼭 닫고 큰기침 소리 한번 없이 들어 앉았다.²²⁾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김창억>은 방구석에 혼자 틀어박혀 앉아 일체 사람

21) 위의 책, 183~184쪽.

22)~26) 廉想涉, 앞의 책, 117~118쪽.

을 만나지 않고 있다.

㉠ 방으로 갔다 주는 조석만 먹으면 자는지 깨어서 누웠는지 하여간 목
침을 들어 드러눕기만 위주로 하였다.²³⁾

작중인물 <김창억>은 그의 딸, 고모, 삼촌 등과 함께 살아가지만 한번도 같
이 식사하는 장면이 없다.

㉡ 사실 그는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었다. 몇 해 동안이나 손도 대어 보
지 않던 성경책을 꺼내 놓고 들여다보기는 하였으나 결코 한 페이지를 계속
하여 보는 법이 없었다.²⁴⁾

이상의 인용문에서 인지되다시피 작중인물 ‘김창억’은 辛, 不幸에 대해서나
희망이나 기원도 없이 그야말로 ‘야심과 흥미와 적극성’도 없는 인물이다.

다음으로 ㉢항목에는 ‘친구도 없어지고 직장에도 안 나간다’라고 있는데 작
중인물 김창억에게는 작품 안에서 친구라곤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을 뿐 아니
라 ‘불의의 사건 - 철장에 매달리어 신음’한 후로는 소학교 교편도 그만둔 실직
자인 것이다.

㉣ 안방에서 혹 번소 가는 길에 들여다보면 그믐 달빛이 건너방 지붕 끝
에서 꼬리를 감추려 할 때에도 빈 방 속에 생불처럼 가만히 앉았었다.²⁵⁾

㉤ 근 반년이나 면도를 아니한 수염에는 먼지가 뿌옇게 앉았고26) 장발
과 돌돌 말린 때물은 철겨운 모시박이 두루마기27)

이상의 ㉠-㉤까지의 예문은 바로 분열성 성격의 의학적 견해에 그대로 부합
되고 있다. 따라서 작중인물 ‘김창억’은 분열성 성격의 소유자임이 확실하다.

(2) 不適 性格

‘부적 성격’이란 ㉦知的 ㉧정서적·사회적 또는 ㉨신체적 요구에 대한 반응

27) 위의 책, 95쪽.

이 모두 부적당한 성격을 두고 말한다.²⁸⁾ (부호 필자) 특히 김창익은 ㉔知的 思考 ㉕정서 ㉖신체적 행동면에서 각각 부적함을 볼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하여 詳論해 보고자 한다.

① 知的 思考의 不適

인간 최고의 기능인 사고는 인간 내부의 言行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자극은 대체로 이성과 논리에 의해서 시정되는데 이런 사고를 현실적 사고 또는 이성적 사고라고 한다.

그런데 정신장애가 있을 때는 이런 사고의 양상이 보통 때와는 다르다. 그 다른 기준은 생각의 비약(flight of ideas), 迂廻症(circumstantiality), '遲延(retardation), 杜絶(blocking), 關聯性(selevance), 不連絡性(neologism) 등의 諸 현상들에 두고 있다.

이런 異常 思考의 현상들은 문학적 측면에서 보면 '의식의 흐름(stream of consciousness)'에 의한 自動記述法(automation)과 상당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보면 역시 이상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標本室의 靑개구리>의 작중인물 김창익과 관계되는 것은 '新語造作'이다.

예수군도 무식한 놈만 모였나 봄디다. ...예수군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죄를 구하소서, 아맹... 하지 않소? 그러나 아맹이란 무엇이요. 맹자 같은 만고의 웅변가더러 버버리라고 아맹(啞孟)이라 하니 그런 무식한 말이 어디 있던 말이요! 나를 ...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할 지경이면 아면(我免)이라고 해야 옳지 않습니까.²⁹⁾

천지현황(天地玄黃)하면 하늘 천 이렇게 읽으니 일대(一大)라 써 놓고 왜 <하늘 대>하지 않습니까. 창공은 우주간에 유일 최대하기 때문에 창힐(蒼詰)이 같은 위인이 일대(一大)라고 쓴 것이 아니외니까. 또 <흙 야>할 것을 <따 지>라고 하는 것도 안된 것이외다. 따란 무엇이외니까? 흙이 아니오? 그러기에 흙도 변에

28) 韓東世, 앞의 책, 215쪽.

29) 廉想涉, 앞의 책, 104쪽.

언제호야(焉哉乎也)라는 천자문의 왼쪽 자인 입것얏자(也)를 쓴 것이외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따는 흙이요, 또 우주간에 최말위(最末位)에 처한 고로 흙똥자에 천자문의 최말자 되는 입것얏자를 쓴 것이외다.³⁰⁾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아멘(amen)’을 ‘啞孟’으로 해석하면서 이것을 다시 ‘我免’으로 보아야 옳다고 주장하는 ‘김창억’, 그는 또 ‘天’字를 ‘하늘 대’ 그리고 ‘地’字를 ‘흙 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新語造作을 볼 때 김창억은 지적 사고의 不適者이다.

② 정서의 不適

정서(affect)는 정신 활동 전반에 걸쳐 크게 영향을 주며, 한 사람의 생활태도를 좌우하며, 智를 지배하고 意를 깨우는 力動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정서의 장애는 곧 성격장애를 가져온다.

‘정서의 부적’에 대한 정신의학적 견해는 “보통의 상태에서 있을 수 있는 감정이 그 상황과의 조화가 되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사람의 사고 내용과 맞지 않는 정서를 가리킨다. 보통 같으면 슬퍼질 내용의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의 표정은 웃는 것이라든가, 또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는 동떨어지게 內心의 변화에 자극 받아 겉으로 웃고 울고 하면 이는 不適合한 것이다.”³¹⁾ 그러면 이 의학적 견해에 부합될 <標本室의 靑개구리>의 구절을 인용해 보자.

잠고대 하는 사람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며 고래를 꼬덕거리고 나서는 히히히 웃기를 두세 번이나 녀었다. … 무슨 환상을 쫓듯이 먼 산을 바라보며 누런 이(齒)를 내놓고 히히히 웃는 그의 얼굴은 원숭이 같이 비열하게 보였다.³²⁾

도망간 아내를 화제에 올려 타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김창억이는 어떤 분노나 저주하는 기색은 조금도 없이 연신 ‘히히히’ 웃기만 한다. 그는 확실히 상황

30) 위의 책, 107쪽

31) 韓東世, 앞의 책, 44쪽

32) 廉想涉, 앞의 책, 108~109쪽

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정서의 不適合이다.

③ 신체적 행동의 부적

여기서 다룰 신체적 행동이란 작중인물의 태도·외모·몸가짐·처신을 말함인데 성격형성에 이상이 올 때는 정신의학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동이 나타난다.

사람이 느리고 가라앉게 되고, 무엇을 하려는 의욕이 없어진 것처럼 되는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게을러지고, 주의가 산만해지고, 꿈꾸게 되거나, 또는 의심이 많아지고 過敏해지는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변화와 함께 흔히 몸의 清潔이나 옷에 무관심해져서 그의 몸이나 옷이 더러워지는 수가 많다.³³⁾

이상과 같은 의학적 견해에 부합되는 구절을 <標本室의 靑개구리>에서 인용해 보면

병어리처럼 가만히 돌아앉았다가 배란간 돌아누워서 자는 체도 하고 우릿간에 든 곱 모양으로 빈 방안을 빙빙 돌아다니다가…이러한 모양으로 일 삭쯤 지내더니 매일 아침에 한번씩 세수하러 나오던 것도 폐하고³⁴⁾

장발과 돌돌 말린 때물은 철겨운 모시박이 두루마깃 자락은 오른편 손가락에 끼우고³⁵⁾

밤중에 연통 속으로 기어나온 것처럼 대가리부터 발끝까지 새까만 탈을 하고³⁶⁾

위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작중인물 김창억은 신체적 행동의 부적자임을

33) 韓東世. 앞의 책, 39쪽.

34) 廉想涉, 앞의 책, 117쪽.

35) 위의 책, 95쪽.

36) 위의 책, 119쪽.

알 수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점 즉, ㉠ 지적 사고의 부적 ㉡ 정서의 부적 ㉢ 신체적 행동의 부적의 논거에 의하여 작중인물 김창억의 부적성격의 소유자임을 밝혀 보았다.

전항에서 구명한 바와 같이 작중인물 ‘김창억’은 분열성 성격과 부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런데 분열성 성격이나 부적 성격은 모두 ‘미숙한 성격’에 포함되므로 결과적으로 작중인물 김창억은 ‘미숙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2. 반사회적 성격

반사회적 성격의 소유자는 항상 감정의 미숙성과 책임감과 판단의 결여를 보이며, 사회규율을 어기고 반사회적 행동을 되풀이한다. “반사회적 성격의 근본원인은 자기 행동을 조절하는 정신기능의 장애에 있다. 이는 사회적 용어로는 양심 또는 도덕, 철학적으로는 윤리, 정신분석학적으로는 超自我的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것이다.”³⁷⁾

전항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狂炎소나타>의 ‘백성수’의 초자아의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것은 그의 어머니의 지나친 돌봄과 아버지의 야성적 유전 때문이다. “건전한 초자아가 형성되려면, 어린이는 그 주위에 동일화할 사랑의 대상, 즉 건전한 부모가 있어야 한다. 부모의 죽음, 가정의 파탄, 가난 또는 그 출생이 사생아인 경우, 이러한 가정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어린이는 장차 커서 반사회적으로 되어 간다.”³⁸⁾는 것이다. <狂炎 소나타>의 백성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뺨 뒤에 곧 자기의 친정에서 쫓겨 나왔’> 그때부터 가난이 시작됨과 동시에 그는 ‘유복자’로 태어난 것이다. 그는 공장 직공이 되고 그의 가난 때문에 어머니는 결국 죽고 만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백성수로 하여금 반사회적 성격으로 되게 하는데 반사회적 성격의 증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37)~38) 韓東世, 앞의 책, 215~216쪽.

커가면서 ㉠ 도둑질·공갈, 아침과 협박, 사기·폭력, ㉡ 성의 변태 등 각종 범죄로 그 형태를 成人化해 간다. … ㉢ 뿌리 깊은 증오와 ㉣ 욕구좌절이 ㉤ 난폭한 행동을 뒷받침한다 … 눈에 띄는 誘發 契機가 될만한 좌절이 없이, 발작적으로 자살 ㉥ 살인·음주·약물중독 ㉦ 변태성 행위를 보이는 때도 있다 … ㉧ 放火症(pyromania)·소매치기와 같은 비사회적 행동의 반복에의 광증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³⁹⁾(부호와 밑줄은 필자)

위의 밑줄 친 부호의 증상에 해당되는 구절을 작품에서 인용해 보면

㉠ 도둑질

돈이 있어야겠단 어렵푼한 생각만 가지고 있던 그는, 한번 사면을 살핀 뒤에 벼락같이 그 돈을 쥐고 달아났습니다.⁴⁰⁾

이리하여 백성수는 마침내 감옥으로 가게 되어 ‘여섯 달동안 이를 갈면서’ 지내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그는 ㉢ 뿌리 깊은 증오를 가지게 된다. 이 증오심은 그가 복역 후에도 뿌리 깊게 남아 돈을 훔쳤던 그 담배집에 불을 지르게 된다. 이 최초의 방화는 그가 ㉧ 放火狂으로 전락하는 길잡이가 된다. 그리고 그의 많은 방화는 ㉡ 성의 변태와 ㉦ 변태성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後項의 IV장 ‘성도착 성격’에서 詳論하겠기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그의 욕구좌절도 작품에서 몇 차례 나타나지만 중요한 사건은 그의 어머니의 약값을 구하려다 실패한 것과 또 하나는 음악 공부에 대한 집념의 좌절이다.

다음은 ㉤ 난폭한 행동에 대한 예문이다.

그 송장의 옷을 모두 찢어서 사면으로 내어 던진 뒤에 벌거벗은 송장을 (제 힘이라 생각되지 않는)무서운 힘으로써 쳐들어서 저편으로 내어졌읍니다. 그런 뒤에는 마치 고양이와 알을 가지고 놀 듯, 다시 뛰어가서 그 송장을 들어서 도로 이편으로 던졌읍니다. 이렇게 몇 번을 하여 머리가 깨어지고 배가 터지고… 그 송장은 보기에다 참혹스러이 되었읍니다.⁴¹⁾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백성수’는 난폭자의 화신처럼 반사회적 성격을 유

39) 위의 책, 217~219쪽.

40) 金東仁, 앞의 책, 152쪽.

41)~42) 위의 책, 159쪽.

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끝으로 ㉔ 살인에 대한 인용문을 보자.

이리하여 저는 마침내 사람을 죽인다 하는 경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한 개의 음악이 생겨났습니다. 그 뒤부터 제가 지은 그 모든 것은 모두가 한 사람씩의 생명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⁴²⁾

이상과 같이 백성수는 ‘방화, 사체모욕, 살인 등 온갖 죄를 다 범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야수성과 광포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狂炎 소나타>의 작중인물 백성수는 반사회적 성격의 소유자임이 틀림 없다.

3. 공포신경증적 성격

지금까지 필자는 작중인물 김창억과 백성수의 성격을 성격장애 이론 측면에서 분석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작중인물 ‘나’(X)의 성격을 신경증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성격학의 이론이 워낙 다양해 나름대로의 장점을 각기 지니고 있지만 미진한 이론부분은 또 다른 측면에서 조명하고 준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경우에 대체로 신경증적 반응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리고 신경증적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즉 “양심과 초자아가 강하고, 융통성이 없이 고지식하며, 도덕적이고, 믿음성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정직하고, 문화인이고 순응한다. … 그는 높은 이상과 야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열등하고 부적하게 느끼며, 자신에 불만이다. 그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많고, 많은 정력을 미래에 대한 계획과 의구심과 두려움에 소비한다”⁴³⁾ 이런 진단에서 볼 때 작중인물 ‘나’는 신경증적 성격의 소유자이다. 신경증을 세분화하면 ㉠ 不安神經症 ㉡ 히스테리 ㉢ 恐怖神經症 ㉣ 強拍神經症 ㉤ 憂鬱神經症 ㉥ 神經衰弱 ㉦ 戰爭神經症 등으로 분류되는데 작중인물 ‘나’(X)는 ㉣ 공포신경증적 성격의 소유자이다.

프로이드는 공포증의 대상 또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둠, 室外, 광장, 고양이, 거미, 송충이, 뱀, 쥐, 천둥, 비, 날카롭게 뿜죽한 것, 피, 닫혀진 방, 불

43) 韓東世, 앞의 책, 33쪽.

빔, 고독, 다리를 건너기, 항해, 기차여행 등”⁴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작중인물 나에게 해당되는 공포의 대상은 ‘날카롭게 뾰족한 것’이다.

팔 년이나 된 그 인상이 요사이 새삼스럽게 생각이 나서 아무리 잊어 버리려고 애를 써도 아니 되었다. 새파란 메스, 달기똥만한 오물오물하는 심장과 폐, 마늘 끝, 조그만 전을 … 차례차례로 생각날 때마다 머리 끝이 쭈뼛쭈뼛하고 전신에 냉수를 끼얹는 것 같았다.⁴⁵⁾

남향한 유리창 밑에서 번쩍 쳐드는 메스의 강렬한 반사광이 안공을 찌르는 것 같아 컴컴한 방 속에 드러누웠어도 꼭 감은 눈썹 밑이 부시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머리맡에 놓인 책상 서랍 속에 넣어 둔 면도칼이 조심이 되어 못 견디었다.⁴⁶⁾

메스…면도, 메스…면도 잊으려면 잊으려 할수록 끈적끈적하게도 떨어지지 않고 어느 때까지 꼬리를 물고 머릿속에서 돌아다녔다.⁴⁷⁾

작중인물 나는 ‘메스’와 ‘면도날’ 즉 ‘날카롭게 뾰족한 것’에 대하여 심한 공포증을 느끼고 있다. “만일 공포를 일으키는 상황에 들어가면 환자는 불안해지고, 기절하고, 땀을 흘리고, 가슴이 뛰고, 오심구토도 나며, 떨기도 한다.”⁴⁸⁾ 이러한 의학적 견해에 작중인물 나는 그대로 부합되고 있다.

쓰다가 몇 달 동안이나 꾸려둔 원고, 편지, 약갑들이 휴지통 같이 우굴우굴한 속을 부스럭부스럭 하다가 미끈하고 잡히는 자루에 집어넣은 면도를 외면하고 꺼내서 창 밖으로 뜰에 내던졌다. 그러나 역시 잡은 못 들었다. 맥이 확 풀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져 나왔다. 시체 같은 몸을 고민하고 난 병인처럼 사지를 축 늘어뜨려 놓고 누워 생각하였다.⁴⁹⁾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대수롭지 않은 ‘면도칼’ 하나에 공포를 느껴

44) Sigmund Freud, 李庸護譯, 『精神分析入門』 下(서울, 白朝, 1965) 125쪽.

45)~47) 廉想涉, 앞의 책, 91-92쪽.

48) 韓東世, 앞의 책, 133쪽.

49) 廉想涉, 앞의 책, 92쪽.

‘잠도 못 들면서’ ‘식은땀’을 흘리며 ‘사지를 축 늘어뜨려 놓는’ 작중인물 나에서 공포신경증적 성격의 일단을 찾아 볼 수 있었다.

IV. 작중인물들의 성격적 공통점

이상으로 필자는 <標本室의 靑개구리>와 <狂炎 소나타>의 작중인물의 성격을 분석하면서 그 차이점을 구명해 보았다. 그러나 본항에서는 <標本室의 靑개구리>의 작중인물 김창억과 <狂炎 소나타>의 작중인물 백성수와 성격적 공통점을 밝혀 볼까 한다. 결론적으로 김창억과 백성수는 둘 다 성도착증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김창억은 ‘觀淫症’을, 백성수는 ‘屍體嗜好症’을 각각 가지고 있는데 이점에 대하여 상술하고자 한다.

성도착증(sexual perversion)이란 정신분석학적으로는性に 대한 억압이 강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며 성숙한 이성과의 성교 이외의 방법으로 성적 만족을 찾는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적인 精神病疾者의 성도착 행위는 깊숙이 있는 성격장애의 한 표현으로 보기 때문에 성격학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

性倒錯 성격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性慾의 量的 異常이고 나머지 하나는 性慾의 質的 異常이다. 양적 이상에는 또다시 성욕 감퇴와 성욕 亢進으로 나누어지지만, 본고에서 주로 취급할 부분은 질적 이상이다. 성욕의 질적 이상에는 성대상의 異常(inversion)과 성목표의 異常(perversion)이 있다. 성대상의 이상이란 성욕을 일으키는 대상이 정상적인 異性이 아니고 동성, 자기 자신, 혹은 이성의 물건으로, 이러한 현상은 성발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성도착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성도착 유형에는

- ㉠ 自己自體愛(autoerotism)
- ㉡ 同性愛(homosexuality)
- ㉢ 女性物件愛(fetishism)

- ㉔ 衣裳倒錯症(transvestitism)
- ㉕ 小兒嗜好症(pedophilia)
- ㉖ 老人嗜好症(gerontophilia)
- ㉗ 動物嗜好症(zoophilia)
- ㉘ 屍體嗜好症(necrophilia)
- ㉙ 近親性愛(incestus)
- ㉚ 露出症(exhibitionism)
- ㉛ 觀淫症(voyeurism)
- ㉜ 加虐症(sadism)
- ㉝ 被虐症(masochism)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김창억과 관련을 맺는 것은 ㉔ 관음증이며, 백성수와 관련을 맺는 것은 ㉘ 시체기호증이다.

“관음증은 이성의 성기 또는 남들의 성행위를 보고 성적 흥분을 느끼는 습관이다.”⁵⁰⁾ “특히 남성이 여성의 脫衣라든가 성행위를 할 때 나체가 된 것을 조금도 꺼려하지 않고 보는 것을 반복해서 성적 만족을 구하는 것이다.”⁵¹⁾ 그리고 “관음자는 정서적으로 미숙한 사람이 많으며 관음의 기회와 장소를 찾느라고 무진 애를 쓴다.”⁵²⁾라고 되어 있다. 우선 성도착증, 특히 관음증의 증세로 볼 수 있는 점은 김창억이가 유곽거리가 잘 내려다보이는 곳에 ‘3원 50전의 3층집’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는 유곽거리를 기웃거리는 것이다.

무슨 생각이 났는지 다시 돌쳐서서 유곽으로 들어갔다. -중략- 유정의 사람자취가 그칠 때까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동서회 친목회장(필자 註-김창억)이 너희(필자 註-유곽의 여인들)들을 감독하려고 내일 이면 또 나오신다고 도지개를 틀며 앉았는데 여회원(필자 註-유곽의 여인들)들을 웃기며 비를 거리고 돌아다닌 것도 그날 밤이었다.⁵³⁾

50) 韓東世, 앞의 책, 224쪽.

51) 懸田克躬 外 4人 編著, 『人格異常・性的異常』(東京, 現代精神醫學系 8, 中山書店, 1981), 212쪽.

52) 韓東世, 앞의 책, 225쪽.

53) 廉想涉, 앞의 책, 195~196쪽.

‘십 수년 동안 기거하던 자기 집을 뛰쳐나와’ 유곽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3원 50전의 3층집’으로 옮긴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김창억이라는 한 남성이 유곽거리의 여인들이 매음하는 장면을 보기 위한 것이라 보아진다. 따라서 작중 인물 김창억은 관음증의 성도착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김창억이가 관음증의 성도착 성격을 가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후처의 가출이었다. 후처의 가출은 그에게 커다란 충격과 성에 대한 억압을 강요하게 된다. 이 성에 대한 억압을 결국 ‘3층집’에 방화를 함으로써 해소하고 있는데 이 점은 <狂炎 소나타>의 작중인물 백성수의 방화심리와 맥을 같이 한다. 사실 ‘불’과 ‘性’은 신화, 전설, 민속, 언어 등 여러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사람들은 “불을 여성적 물질에 생기를 주는 남성적 원리”⁵⁴⁾로 파악하고 있다. “남성 생식기에서 불을 끄집어 내는 전설이며”⁵⁵⁾ “불씨를 陰門에 쏘서 넣는 설화”⁵⁶⁾며, 남성의 심불을 ‘불알’(불을 지닌 알)이라는 우리의 언어에서도 쉽게 ‘불’은 남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불’과의 교접설화도 많다. 즉 아일랜드에서는 젊은 아가씨가 앞뒤로 세 번씩 불 위를 뛰어 넘으면 바로 결혼하고 행복해지고 자식복을 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아일랜드 사람들은 새끼를 낳지 않는 가축을 내몰아 하지 때 불뿔을 지나가게 하고 있다. 레크(Lech)계곡에서는 젊은 남자와 아가씨가 함께 하지 때 불을 뛰어 넘는 순간 불에 타지 않는다면 그 아가씨는 일 년 이내에는 어머니가 될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불꽃이 그 아가씨에게 닿지 않았기 때문에 잉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같은 의미로 우리나라의 김해지방 풍습에도, 갓 결혼해서 시댁으로 시집오는 첫날 신부에게 대문 앞에 피워 둔 켜불을 뛰어 넘어 들어오게 한다. 이와 같은 전설이나 풍습에서 ‘불’은 바로 수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바로 불과 같은 강렬한 성교를 전제로 한 원시인의 불의 性化作用 사고방식에서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시 사회에서 축제의 신호는 언제나 ‘불’에 의해서 시작되고 그 불은 “마찰에 의해서 타오르고 전기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고 생식행위를 설명할 수 있

54) Gaston Bachelard, 閔憲植譯, 『불의 精神分析』(서울, 三省出版社, 1976), 53쪽.

55) James George Frazer, 『Myths of the Fire』(Hacker Art Books, New York, 1974), 22쪽.

56) 위의 책, 23쪽.

다고 생각되어지고 있다.”⁵⁷⁾ 그러므로 작중인물 김창억이가 ‘3층집’에 불을 지르는 것은 일종의 마찰이며 ‘아내’에 대한 성적 욕구 불만이 잠재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며 백성수의 방화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

이제 <狂炎 소나타>의 작중인물 백성수의 ‘시체기호증’에 대해서 알아보자.

<狂炎 소나타>의 백성수는 크게 보아 반사회적 성격의 소유자이고 이 성격의 한 부분으로 시체기호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앞에서 이미 밝혔다.

시체기호증이란 “시체와 교접하거나 그 일부를 잘라서 자위 등을 함으로써성의 만족을 얻는 것”⁵⁸⁾이다. 시체기호증은 “새디즘(sadism)과 병존한 네크로 새디즘(necro sadism)과 여성물건애(fetishism)와 연결된 네크로 웨티시즘(necro fetishism)으로 양분되는데”⁵⁹⁾ 백성수의 경우는 ‘네크로 새디즘’에 해당되는 것 같다. 다음 인용문을 보자.

저는 그날 밤, 혼자 몰래 그 여자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칠팔 시간 전에 묻은 놓은 그의 무덤의 흙을 파서 그의 시체를 꺼내어 놓았습니다. 푸르른 달빛 아래 누워 있는 아름다운 그의 모양은 과연 선녀와 같았습니다. 가볍게 풀어헤친 검은머리... 아무 표정도 없는 고요한 얼굴은 더욱 처연(悽然)함을 도왔습니다. 이것을 정신이 없이 들여다보고 있다가 저는 갑자기 흥분되어... 아아 선생님, -중략- 재판소의 조서를 보시면 저절로 알으실 것이올시다.⁶⁰⁾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백성수는 <여자 무덤의 시체를 들여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흥분되어> 屍姦을 한 것이다. 즉 시체기호증을 나타내고 있다. 아주 특이한 성도착증 성격의 한 양상이다. 따라서 김창억은 관음증을, 백성수는 시체기호증을 각각 지니고 있다. 상위 항목의 범주에서 볼 때 이들은 공통적으로 성도착 성격의 소유자이다.

57) Bachelard, 앞의 책, 33쪽.

58) 懸田克躬 外 4人 編著, 앞의 책, 185쪽.

59) 위의 책, 211쪽.

60) 金東仁, 앞의 책, 158~159쪽.

V. 결론

소설의 올바른 작품 감상은 인물, 주제, 구성, 배경, 사건 문체 등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데서 성립된다. 이러한 소설의 諸要素 중에서 가장 요체가 되는 것은 역시 인물의 이해일 것이다. 작중인물의 올바른 파악 없이는 올바른 평가도 있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성격학의 이론을 원용하여 <標本室의 靑개구리>의 작중인물의 성격과 <狂炎 소나타>의 작중인물의 성격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標本室의 靑개구리>의 김창억과 <狂炎 소나타>의 백성수는 모두 성격장애자들이었다.

2. 그러나 성격장애자로서의 공통점은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김창억은 ‘미숙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더 세분하면 ‘분열성 성격’(단순형)과 ‘不適 성격’의 소유자이다. 반면 백성수는 ‘반사회적 성격’의 소유자이다.

3. 한편 김창억과 백성수는 공통적으로 ‘성도착증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세분하면 김창억은 관음증이며 백성수는 시체기호증이다.

4. <標本室의 靑개구리>의 작중인물 ‘나’(X)는 ‘신경증적 성격’의 소유자이며 더 세분하면 ‘공포신경증적 성격’의 소유자이다.

끝으로 ‘자의식 소설’의 작중인물에는 이러한 성격장애자와 신경증적 성격을 지닌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밝혀 두고 싶다.

주제어 : 標本室의 靑개구리, 狂炎소나타, 작중인물의 성격, 성격장애, 미숙한 성격, 성도착 성격, 반사회적 성격, 분열성 성격, 부적 성격, 관음증, 시체기호증, 공포신경증적 성격.

참고문헌

- 金東仁 「狂炎소나타」 『韓國短篇文學大系』 1, 서울:三省出版社, 1975.
- 廉想涉, 「標本室의 靑개구리」 『韓國短篇文學大系』 1, 서울:新華社, 1979.
- 李在銑, 『韓國短篇小說研究』, 서울:一潮閣, 1982, 중판, 1995, 134~147쪽
- 趙演絃, 『韓國現代文學史』, 서울:成文閣, 1977, 3판, 375~393쪽.
- 최상윤, 『한국자의식 소설 연구』, 부산:세종출판사, 2002, 증보판, 18쪽.
- 崔仁旭, 「創作實技論」 『世界文藝講座』 4, 서울:語文閣, 1962, 135쪽.
- 韓東世, 『精神科學』, 서울:一潮閣, 1969, 39·44·68쪽, 79·133·183·213쪽,
215~219쪽, 224~225쪽.
- 懸田克躬 外 4人 編著, 『人格異常・性的異常』, 東京:現代精神醫學大系 8, 中山
書店, 1981, 212·185쪽 211~212쪽.
- A. A. Brill, 『Basic Principles of Psychoanalysis』, New York:Washington
square Press INC, 1960, 305쪽.
- Berard J. Paris, 『A Psychological Approach to Fiction』, Indiana University
Press second printing, 1974, 26쪽.
- Gaston Bachelard, 閔憲植 譯, 『불의 精神分析』, 서울:三省出版社, 1976, 53쪽.
- James George Frazer, 『Myths of the Fire』, New York:Hacker Art Books,
1974, 22쪽.
- Joseph P. Strelka, 『Literary Criticism and Psychology』,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76, 55쪽.
- Sigmund Freud, 李庸護 譯, 『精神分析入門』 下, 서울:白朝, 1965, 125쪽.
- Rene welleck & A. Warren 『theory of literature』, New York:A harvest Book
Harcourt, Brace & World INC, 1956, 70쪽.
- Wilfred L. Guerin 外 鄭在浣 金聖坤 共譯 『文學의 理解와 批評』, 서울:靑鹿出
版社, 1978, 99쪽.

<Abstract>

The Study of Comparison in Characters in
the Plays <The Hyla of Specimen Room> and
<The Sonatae of Flame>

Choi, Sang-Yoon

The correct appreciation of novel consists in understanding a function of character , subject, composition and literary style.

After all, the main of these elements is to understand characters.

In this terms, the writer has analyzed the characters of two works through usage of The characterology.

The result is as follows.

1. Both characters 'Chang-ic Kim' of 'The Hyla of Specimen Room' and 'Sung-soo Back' of 'A sonata of flame' are personality disorders.

2. They have not only something in common as personality disorders but detailed difference. 'Chang-ic Kim' has immature personality. When it is subdivided, he is schizoid and inadequate. On the other hand, 'Sung-soo Back' is a antisocial.

3. Also, both of them have 'sexual perversion personality'.

However, 'Chang-ic Kim' is a voyeuristic and 'Sung-soo Back' is a necrophilic.

4. On the other hand, other character, 'I' of 'The Hyla of Specimen Room' is a neurotic. And when it is subdivided, "I" is a phobic.

Key Words : character, personality disorder, immature personality, sexual perversion, antisocial personality, neuroses personality,

schizoid personality, inadequate personality, voyeurism,
necrophilia, phobic neurosis personality.